

요약문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교 이해증진사업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사례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사업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해증진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수강생들이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및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증진사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행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해증진사업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첫째, 고등교육 수준의 개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 감소에 기여하였다. 대학생들의 개발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지만 이를 강좌에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방대학에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개발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이 과목 수강을 통해 인지 및 이해, 태도 변화, 그리고 작은 실천까지 이어졌다. 셋째,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수강생들은 수강 후 자신들의 진로에 있어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학생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선회하는 등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넷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의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국제개발협력 이해 과목이 보다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교양 강좌에서 다양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수강생 일부에게 해외현장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요인을 실제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책임 교수들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였고, 학생들 또한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강의 목적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성공사례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책임 교수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사, 해외현장활동 등을 활용하여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 또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교과목의 수업이나 과제가 해외현장활동과 연계성이 높아 학생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 전에 학습할 수 있었으며, KOICA의 현장사무소 연락 등은 책임교수가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현장활동 참여자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뽑았으며, 참여 학생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다음 학기에 발표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셋째, 이해증진사업의 성공 사례들은 우수한 성과 관리를 통해 다음 학기 혹은 다음 연도에 개설되는 강의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사진전·동영상·발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공 요인을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해증진사업의 목표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으로서 예산 확대 및 전담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교수의 역량에 따라 교육 내용의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OICA ODA교육원과 전문가들이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사업 운영은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보다는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확실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업관리를 위한 책무성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해증진사업의 기본 목적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지만, 현재의 사업 및 강의 평가 체계는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증진 교육의 효과가 해마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평가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